

## 영재 학생의 성격유형 및 자아상태와 영재선발 평가결과 간의 관계

이순주(李順珠)\*

###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와 차는 영재선발 전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형(T)일수록 그리고 인식형(P)일수록 종합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유형의 기질별 학업성취에서는 수행평가와 종합평가에서 직관적사고형(NT) 학생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고 감각적인식형(SJ) 학생의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재학생의 자아상태와 학업성취에 대한 분석에서는 어버이자아상태(P)가 이들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평가에서는 양육적어버이자아(NP)가, 면접평가와 창의적문제해결력 평가에서는 비판적어버이자아(CP)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영재학생의 성격유형 및 자아상태와 영재선발 평가결과 간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이들의 정의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각 분야 영재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사고 특성을 촉진 개발시키는데 있어 학습자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주요어 : 영재, 성격유형, 자아상태, 학업성취, 영재선발, 평가결과, Ego-gram 검사, MMTIC검사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 I. 서론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바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이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육 분야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변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교수 학습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연구 결과(김민, 2007; Bloom, 1971; 조한익, 1990)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는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개념 확립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에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받게 되는 성적 순위는 또래집단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진로 결정을 위한 지표로도 작용하여 미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환경 변인을 비롯하여 학습자 변인, 수업 변인이 제시되며 이중 학습자 변인은 크게 인지적, 정의적, 인성적 특성 그리고 가정 및 사회, 경제적 측면 등으로 나뉘어진다. Bloom(1971)에 따르면, 인지적 특성 중 하나인 지능은 학습자의 학업성취의 50%까지 결정해주고 학습동기, 성취동기, 자아개념, 성격, 태도, 흥미, 불안 등이 포함되는 정의적 특성은 학습과제의 성공가능성을 25%까지 결정해준은 물론 인간의 학습을 지속시켜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고 한다. 이에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정의적 측면인 성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김민정, 2002; 최선희, 1998; 이경아, 유나현, 이은경, 전주연, 이기학, 2004), 아동의 자아상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권혁자, 1997; 이경화, 2003; 임준환, 1993; Ablard, 1997)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권은영, 2003; 윤은중, 김희수, 2006) 등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연구 추세는 성격 및 자아상태, 흥미 및 불안 등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아울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정의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성격유형과 자아상태가 핵심적인 학업성취도의 예언 변인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이 두 가지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 즉 학업성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학업성취와 관련한 교육연구와 평가에서 학습자의 성격과 자아상태를 중요한 변인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1970년대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황정규(1985)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성격유형 및 자아상태의 증진은 교육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의 측면에서 하나의 중개변인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Jung의 이론을 근거로 성격검사를 개발해낸 Myers와 McCaully(1985)는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가 좌우되며, 높은 지적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나 기능별 기질별 성격유형은 인간관계나 일처리 방식 그리고 가시적 행동특성과 취미,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김정택,

심혜숙, 2000) 이러한 성격유형을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개선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효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Schurr et al., 199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볼 때, 아동의 성격 및 자아상태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성이 영재학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연구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 대부분이 연구 대상을 일반아이에만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간의 영재교육 역사를 통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영재교육 대상자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발되는 영재들이 “학습된 영재아”이지는 않은가에 대한 의문점과 그에 따른 영재선발의 문제 그리고 선발된 영재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지도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의 여러 영재교육 전문가들(변소윤, 2007; 이혜영, 2003; 장언효, 조석희, 1980; Bartell & Reynolds, 1986; Coleman & Fults, 1983; Lian, 1990)은 영재들이 지니는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격특성이나 심리적 인성적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의적 영역에서의 영재아의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영재들의 심리적·정의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심리적 지원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행동특성이나 정의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일반 학생과는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이들에게는 일반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와 심리지원 활동들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또한 영재아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지적 능력 및 영재성뿐만 아니라 정서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지도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몇 년 전에 진행된 정순진의 연구(2007)에서는 또래집단 보다 높은 지적수준에 있는 영재아들이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유형과 관계가 깊으며 영재 학생들의 심리유형의 특성은 학습스타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다고 강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에만 한정되어 있던 연구대상의 폭을 영재학생으로 넓혀 영재선발평가 결과에 있어 성격과 자아상태가 어떠한 형태로 변인적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심리적 기능 및 기질유형에 따른 영재선발평가결과의 차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선호경향을 고려한 교육적·심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로 실시된 영재선발 평가결과를 영재학생의 학업성취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각 단계별 평가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개방형 주관식 문제를 통한 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탐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 실험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면접평가 그리고 영재선발 전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영재 학생의 성격유형 및 자아상태와 영재선발 평가결과 간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이들의 정의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에 따른 지도방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유형별, 수준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파급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영재선발 평가결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재학생의 자아상태에 따라 영재선발 평가결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격유형의 기능 및 기질별 특성

본고의 연구목적 중의 하나가 영재학생의 심리적 기능 및 기질 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와의 차를 분석하는 데에 있는 관계로 본장에서는 먼저 성격유형의 4가지 기능 및 기질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MMTIC에서는 성격유형의 기능과 기질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중 기능 유형에서는 인식기능 S/N과 판단 기능 T/F의 역동에 따라 환경에 대처하는 행동이 달라지며 ST, SF, NT, NF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되고 기질 유형은 인식기능 S와 생활-행동양식 J/P가 결합하여 SJ와 SP를 만들며 인식기능 N과 판단기능 T/F가 결합하여 NT와 NF를 만든다.

Jung은 오랜 세월 동안의 관찰을 통하여, 인간은 감각(sensing) 또는 직관(intuition)을 통해 지각을 하고, 사고(thinking) 또는 감정(feeling)을 통해 판단을 내린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설에 근거하여 감각·직관을 통한 지각과 사고·감정을 통한 판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을 ST, SF, NF, NT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이병래, 1998). 이 4가지 기능 유형을 통해 한 사람이 일을 선택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들 4가지 기능 유형의 특성(정순진, 2007)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ST(감각적 사고형)

인식할 때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에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사고를 선호하고 주어진 상황의 사실성에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 추리과정을 바탕으로 논리적, 분석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보수적이고 전통적, 통계적인 성향을 지닌다.

② SF(감각적 감정형)

인식은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은 감정을 주로 사용한다. 감각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 온정을 중시한다.

③ NT(직관적 사고형)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를 선호하기 때문에 객관적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는 기술적, 과학적,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추구한다.

④ NF(직관적 감정형)

열정적 통찰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의사결정을 하지만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와 같은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그리고 알려질 수 있는 진리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다음은 성격유형의 4가지 기질별 특성이다.(정순진, 2007)

① SJ(감각적 판단형)

책임과 충성심이 뛰어나고 근면하게 일하며 전통과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다. 일을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처리하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반복과 훈련을 단계별로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절차나 사실을 기억하고 지식을 얻는다.

② SP(감각적 인식형)

자유를 갈망하며 구속받고 제한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고 싶은 것을 거리낌없이 한다. 순간에 요구되는 충동적인 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한다. 낙천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현재에 잘 몰입하며 도구 사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 실체에 관심을 가지며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목적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③ NT(직관적 사고형)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자기비판적이다. 자질, 재능, 재주, 지식의 축적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독창성을 가진 아이디어에 뛰어나고 추상적인 구도를 구축하여 자신감을 보여주려

고 한다. 지적호기심이 많아 인지적 세계를 구조화하기 위해 규칙을 수립하고 원칙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 ④ NF(직관적 감정형)

이상가로서 진실, 공감, 공유관계를 원하며 자신의 의미와 정체감, 자아실현을 추구하난. 높은 목표를 세워 학업성취가 높으며 창의적이고 의사소통을 즐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며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느낌과 직감으로 문제를 빠르게 통찰하여 해결한다.

## 2. 이고그램

많은 심리학자들은 Jung의 이론에 근거한 인간의 심리적 성격유형과 Berne의 이론에 근거한 이고그램이 분명 인간의 정서적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또한 Jung과 Berne 이 두 이론은 심리적 에너지의 역동성에 기초하고 있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이 여러 학자들(Berne, 1964; 이현정, 2006; 정선심, 2006)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 두 이론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인 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인간관계능력이나 학습능력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모색되고 있다.(이순주, 박찬웅, 2009) Dusay(1977)는 현실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고그램은 '중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반면 현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고그램은 'U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검증하면서 특정한 이고그램의 형태는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송현중, 1998)

이러한 가정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론해 보면, 이고그램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수준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과도 체계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태 점검표(Ego-gram Check List)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이고그램(Ego-gram)이론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심리치료법이며 성격이론인 교류분석(TA) 중에서 구조분석에 속한다. 이것은 Berne의 수제자이며 동료인 John M. Dusay(1977)가 고안한 것으로 자아상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세 가지 자아상태 사이에 흐르고 있는 심적 에너지의 급부상황을 그래프화 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아상태의 에너지 배분을 파악하여 자기에 대한 자각이나 진단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성격 중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하여 자기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직관적이고 객관성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 미국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이고그램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Heyer(1979)는 질문지법 이고그램을 1979

년에 완성시켜 현재도 그 추적조사를 행하고 있다(우재현, 1997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류분석협회 우재현이 1990년대에 개발·표준화한 한국형 이고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이고그램을 해석할 때는 어느 자아상태가 심리적 에너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자아상태의 힘이 가장 약한지에 주의를 기울여서 심리적 에너지의 분쟁상태나 자신의 사고 방식 그리고 태도의 패턴을 발견하여 자기의 참모습을 진단함으로써 더욱 균형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TA 이고그램을 활용한 연구 중에는 대학생의 행동변화를 추구한 연구(Thomas, 1978)와 전문대학생의 자아상태 활성화와 인간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여춘근, 이영호, 1997) 그리고 교사의 성격과 자아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서준석, 2001), 이고그램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송현중, 1998) 등이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밝힌 장선심(2006)의 연구와 청소년의 자아상태와 공격성의 관계를 밝힌 최윤정(1999)의 연구가 있다.

### 3. 영재의 성격특성

영재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영재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 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영재들의 교육적인 지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재들의 심리적·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영재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연구대상과 방법을 달리한 연구 진행을 통해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먼저 국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영재들의 성격특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Sak(2004)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영재들 간 가장 일반적인 성격유형으로 직관형(N)과 인식형(P)을 꼽았으며 청소년 영재와 일반 학생 간 성격유형 비교에서 영재집단이 내향(I), 직관(N), 사고(T), 인식(P) 지표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Silverman(1993)은 통찰력, 이해의 요구, 정신적 자극의 요구, 완벽주의, 정확성 및 논리, 유머감각, 민감성, 공감능력, 긴장감, 인내, 민감한 자기 감각, 비 순응성, 권위 규칙에의 도전, 내향적인 경향성 등을 영재의 성격특성으로 제시하면서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영재의 특성 즉 심동적, 감각적, 상상적,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영재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성격 유형의 차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영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재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데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예로 이혜영(2003)의 연구에서는 기질 면에서 영재학생집단이 높은 SJ형(책임감과 의무존중, 위계질서 존중, 보수적 가치관, 전통중시, 근면정신, 경험과 체득)을 나타내고 일반학생집단에서는 SP형(자유스러움, 충동적, 스스럼없고 자발적, 흥취와 자극, 현재에 몰입, 행동적이며 용감, 도구 사용의 숙련성, 절충과 적응,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능면에서는 NT형(논리적, 창의적인 유형, 아이디어가 많음, 실천보다 개념 쪽, 수학 과학에 뛰어남)과 ST형(실제적이고 사실 중심적 유형, 실질적 사무적 실리적으로 강인함)의 분포가 영재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선호지표, 기질적 특성, 기능적 특성을 비교한 변소윤(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 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직관형(N), 사고형(T), 인식형(P)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초등 영재가 기질적 특성에서는 직관적 사고형(NT)의 분포가 기능적 특성에서는 직관적 사고형(NT), 감각적 사고형(ST)의 분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순진(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양식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과학영재는 기질적으로 NF형(직관적 감정형)과 NT형(직관적 사고형)이 많았고, 일반학생은 NF형(직관적 감정형)과 SP형(감각적 인식형)에 주로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영재의 성격유형 기질별 특성에서 NF형(직관적 감정형)은 독립적 감정적인 반면 SJ형(감각적 판단형)은 의존적, 회피적인 선호를 나타냈으며 성격유형 기능별 특성에서는 NF형(직관적 감정형)과 SF형(감각적 감정형)이 참여적이었고 NT형(직관적 사고형)과 ST형(감각적 사고형)은 회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영재의 자아상태

영재들의 자아상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자아상태 간 차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 영재아와 일반아 그리고 경도의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1990년에 진행된 Lian-Hwang(1990)의 연구와 언어와 수학에서 뛰어난 영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조사한 Brody와 Benbow(1986)의 연구 그리고 초등학교 4, 5학년의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아개념 및 우울을 비교 연구한 Bartell과 Reynolds(1986)의 연구는 모두 영재아와 일반아 간 자아상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영재들의 긍정적인 자아상태를 제시하는 연구. 영재와 일반학생의 자아상태를 비교 연구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Coleman과 Fults(1983)의 연구, Ablard(1997)의 연구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이 영재들의 자아상태가 일반아 보다 긍정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문정화, 이승희, 1993; 장언효, 조석희, 1980) 또



한 영재아가 일반아 보다 더 조속하고, 높은 자아상태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더 권력이나 힘있는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습·동기·창의적 특성과 지도력, 사고력, 사회적 적응 등 모든 영역에서 영재아가 더 우수함은 물론 자아상태 또한 일반학생 보다 긍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Gross(1993)와 Montour(1977)의 연구들은 영재들의 부정적인 자아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영재의 자아상태에 대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로 인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더불어 영재들의 자아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이러한 자아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나 범위들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5. 성격유형 및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지금까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중 정의적 특성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성격 및 불안, 자아개념, 성취동기, 흥미나 태도 등을 중심으로 행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학습자의 특성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학습지도의 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발달은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성을 규명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성격 및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간의 일관성 있는 관련성이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것은 학습자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김혜경, 1996; 송종건, 1994; 허정, 1991). 이중 우리나라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한 허정의 연구(1991)와 대학 입시반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경(1996)의 연구에서는 내향형(I)이 외향형(E) 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종건(1993)의 연구에서는 직관형(N)이 감각형(S) 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 보다, 인식형(P)이 판단형(P) 보다 학업성취가 높다고 밝히고 있고 기능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에서는 NT형이 가장 높고, SF, ST, NF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진행된 Lathey(1991)의 연구는 중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판단형(J)-인식형(P) 선호도가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인식형(P)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연구한 Myers와 McCaulley는 내향형(I)이 외향형(E) 보다,

직관형(N)이 감각형(S) 보다, 판단형(J)이 인식형(P)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성격유형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만 세부 분석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의 최대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 근거한 성격유형별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시도하거나 바람직한 성격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에는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 분야에서는 양자 간의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들이 제시됨으로써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자아개념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문헌 중 권혁자(1997)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사이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경화(2003) 또한 일반 교과와 읽기, 수학 등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사이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고한바 있다. Binder와 Jones, Strowig(1970)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현재의 능력이 고려되었을 때라도 수행의 예언을 의미있게 추가한다고 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좋은 학업성취 간의 정적 관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한편 자아개념과 학업성적 간의 인과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Maccoby와 Zeller(1970)은 성적은 자아의 필요조건이라 하였고, Calsyn과 Kenny(1977)는 자아와 성적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아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았다. 또한 Anderson과 Evans(1974)는 자아가 성적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하기도 하였다(임준환, 1993 재인용).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재단이 지정한 K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중등 수학 과학 영재 130명(평균 연령 만1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성격유형 검사에서 검사결과 U-band에 속한 학생은 성격유형 지표 선호에서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것으로 의미하는 관계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자아상태 검사에서도 검사결과 오류를 보인 학생이나 반응누락자 또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등 영재 111명만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MMTIC 및 자아상태 검사는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에게 검사 방법을 설명해준 후 지도교사를 통해 대상 학생들에게 검사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사는 먼저 Ego-gram 질문지를 이용한 자아상태 검사부터 실시되었으며 그후 MMTIC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중 자아상태 검사는 약

20분이 소요되었고, MMTIC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학업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응시했던 영재선발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아상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의 차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연구대상 학생 중 5가지 자아상태 수준이 각각 상위와 하위 25%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을 표집하여 두 집단의 단계별 영재선발 평가결과를 사용하였다.

## 2. 검사도구

### 1) MMTIC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검사도구 MMTIC(Murphy-Meisgeir Type Indicator For Children)는 1990년 Meisgeir와 Murphy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4쌍의 선호지표, 4가지 기능, 4가지 기질, 16가지 성격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심혜숙, 임승환, 1997). MMTIC(어린이 성격유형검사)의 한국 표준화 작업은 1993년 김정택과 심혜숙에 의해 만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26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이해나 문항구성, 사용방법에서 MBTI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검사 도구에 대한 검사-재검사 방법에 의한 신뢰도는 <표 1>과 같으며(김정택, 심혜숙, 1993)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MMTIC 검사도구와 신뢰도

선호도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외향성(E)-내향성(I)	16	1, 2, 7, 9, 21, 24, 31, 45, 46, 52, 56, 59, 66, 68, 70	.71
감각형(S)-직관형(N)	18	5, 6, 13, 14, 16, 22, 26, 28, 30, 37, 43, 44, 50, 53, 58, 63, 64, 69	.75
사고형(T)-감정형(F)	18	3, 4, 10, 11, 12, 17, 18, 25, 29, 32, 34, 36, 38, 39, 42, 54, 61, 67	.64
판단형(J)-인식형(P)	18	15, 19, 20, 23, 27, 33, 35, 40, 41, 47, 48, 49, 51, 55, 57, 60, 62, 65	.71
계	70		

### 2) 자아상태(Ego-gram Check List) 점검표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Berne의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자아상태 점검표(Ego-gram Check List)는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신뢰도는 .74

이며,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84, 기준에 의한 타당도 .87, 개념 타당도 .84로 보고되어 있다(한국 교류분석협회, 1994).

자아상태 점검표는 5개의 지표마다 10문항씩 모두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비판적어버이자아상태(CP), 양육적어버이자아상태(NP), 성인자아상태(A), 순응적어린이자아상태(AC), 자유스러운어린이자아상태(FC)에 관해서 10문항씩 배정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5점 평정 척도)로 각 지표 당 50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가 그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영재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의 차와 자아상태 상 하위 두 집단 간의 평가결과의 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기능 및 기질별 영재학생의 성격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MMTIC 한국판 표준화(김정택, 심혜숙, 1993)와 비교하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해 영재학생의 심리적 기능 및 기질 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의 차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영재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 1) 영재학생의 성격유형 선호지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의 차를 t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개방형 주관식 평가와 수행평가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영재선발 전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향-외향(E-I) 선호지표와 직관-감각(N-S) 선호지표에 따른 총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고-감정(T-F)와 J-P(판단-인식) 지표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여주었다. 다시말해 사고형(T)의 총점 평균은 59.87(SD=11.96), 감정형(F)의 평균은 55.55(SD=10.16)으로 나타났고 인식형의 종합평가 평균은 57.72(11.08), 판단형(J)의 평균은 49.31(5.41)으로 나타나 t 검정 결과, 사고-감정(T-F)형은  $t=2.02$

로 유의수준 5%에서 그리고 J-P형은  $t=3.98$ 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사고형(T)일수록 그리고 인식형(P)일수록 종합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재의 성격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성격 유형	N	개방형 주관식 평가		면접평가		수행평가		종합평가	
		M(SD)	t	M(SD)	t	M(SD)	t	M(SD)	t
E	64	44.85(7.55)	-.95	7.24(.88)	-.39	62.60(17.04)	-.53	56.48(9.72)	-0.75
I	47	46.39(8.98)		7.30(.86)		64.59(20.88)		58.15(12.64)	
N	77	45.54(8.09)	.07	7.22(.86)	-.89	65.01(18.93)	1.35	57.94(11.16)	1.09
S	34	45.40(8.51)		7.38(.87)		59.91(17.93)		55.49(10.70)	
T	42	46.89(7.49)	1.45	7.47(.83)	1.99	67.28(20.64)	1.62	59.87(11.96)	2.02*
F	69	44.65(8.52)		7.14(.87)		61.11(17.15)		55.55(10.16)	
J	9	44.25(6.38)	.42	7.33(.61)	-.23	48.55(9.79)	2.52	49.31(5.41)	3.98**
P	102	45.44(8.20)		7.26(.89)		64.58(18.76)		57.72(11.08)	

\*  $p<.05$ , \*\*  $p<.01$

## 2) 심리적 기능 및 기질 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 (1) 영재학생의 기능별 기질별 성격유형의 분포

감각적사고형(ST), 감각적감정형(SF), 직관적사고형(NT), 직관적감정형(NF) 이 네 기능면에서 볼 때 영재집단은 NF형(41%)이 가장 높은 분포를, ST형(10%)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영재집단과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네 기능별 차이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각적 사고형(ST), 감각적감정형(SF), 직관적사고형(NT), 직관적감정형(NF) 모두 영재집단이 한국판 표준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직관적사고형에서는 영재집단과 한국판 표준화 사이에 다소 큰 격차를 나타내어 한국판 표준화와는 다른 영재집단만의 기능별 분포 양상을 읽을 수 있었다. 즉 한국판 표준화와 비교했을 때 영재집단에게서 직관적사고형(NT)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즐겨하는 영재집단의 특성이 과학적, 이론적 분야에 잘 적응하는 직관적 사고유형(NT)으로 표현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순주, 박찬웅, 2009).

&lt;표 3&gt; 영재학성의 기능별 성격유형의 분포

단위: N(%)

그룹	ST	SF	NT	NF	$\chi^2$	$\chi^2$
영재	11 (10%)	23 (21%)	31 (28%)	46 (41%)	22.92***	87.31***
한국판 표준화	153 (16%)	412 (43%)	47 (5%)	340 (36%)	201.28***	

\*\*\*  $p < .001$ 

한편 감각적판단형(SJ), 감각적인식형(SP), 직관적사고형(NT), 직관적감정형(NF) 이 네 기질 면에서 볼 때 영재집단의 경우 직관적감정형(NF, 41%)이 가장 많은 분포를 SJ형(6%)이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 한국판 표준화에서는 직관적감정형(NF, 35%)이 가장 많은 분포를 직관적사고형(NT, 5%)이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재집단과 한국판 표준화에서 나타난 네 기질별 차이는  $\chi^2$  검정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각 집단이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판 표준화에 비해 영재집단은 직관적사고형(NT)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반면 SJ형의 분포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집단의 이러한 직관적사고형(NT)의 높은 분포 양상은 Lawrence(1984)와 최원현(2000)에 의해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조사나 문제해결 학습을 선호하는 직관적사고형(NT)의 학습양식 그리고 Keirse와 Bates(1984)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어떤 문제에 대해 장기간 집중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직관적사고형(NT)의 선호 경향이 영재들의 성격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이순주, 박찬웅, 2009). 또한 영재집단에서 직관적감정형(NF)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이순주, 박찬웅, 2009; 정순진, 2007)와도 유사한 분석결과이다.

&lt;표 4&gt; 영재학성의 기질별 성격유형의 분포

단위: N(%)

그룹	SJ	SP	NT	NF	$\chi^2$	$\chi^2$
영재	7 (6%)	27 (24%)	31 (28%)	46 (41%)	27.53***	73.91***
한국판 표준화	280 (29%)	294 (31%)	47 (5%)	340 (35%)	60.01***	

\*\*\*  $p < .001$ 

## (2) 심리적 기능 및 기질 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MMTIC의 4가지 기능유형에 따라 영재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및 면접, 수행평가 그리

고 종합평가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유의확률을 구하였다. 성격유형의 기능별 영재선발 평가결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기능유형과 창의적 문제 해결 및 면접, 수행평가, 종합평가결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질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행평가와 종합평가에서는 직관적사고형(NT) 학생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각적인식형(SJ) 학생의 평가결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질 유형에 따른 영재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와 종합평가는 모두 직관적사고형(NT)>감각적인식형(SP)>직관적감정형(NF)>감각적판단형(SJ) 순으로 나타나 직관적사고형(NT) 학생의 학업성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과학학업성적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고병연(2010)의 연구 결과 즉 성격유형의 4가지 기질유형과 학업성적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관적 사고형(NT)이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5> 심리적 기능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M(SD)

기능유형	N	개방형 주관식 평가	면접평가	수행평가	종합평가
감각적사고형 (ST)	11	41.54 (13.77)	7.45 (0.93)	60.09 (21.95)	67.68 (21.92)
감각적감정형 (SF)	23	41.52 (17.71)	7.30 (1.01)	59.82 (16.22)	67.10 (16.47)
직관적사고형 (NT)	31	43.58 (13.15)	7.51 (0.85)	69.83 (19.90)	77.27 (20.24)
직관적감정형 (NF)	46	38.84 (15.46)	7.08 (0.86)	61.76 (17.73)	68.83 (17.98)
<i>F</i>	111	0.61	1.55	1.77	1.79

<표 6> 심리적 기질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M(SD)

기질유형	N	개방형 주관식 평가	면접평가	수행평가	종합평가
감각적판단형 (SJ)	7	33.71 (10.48)	7.28 (0.75)	49.57 (10.51)	57.00 (10.49)
감각적인식형 (SP)	27	43.55 (17.10)	7.37 (1.04)	62.59 (18.61)	69.96 (18.79)
직관적사고형 (NT)	31	43.58 (13.15)	7.51 (0.85)	69.83 (19.90)	77.27 (20.24)
직관적감정형 (NF)	46	38.84 (15.46)	7.08 (0.86)	61.76 (17.73)	68.83 (17.98)
<i>F</i>	111	1.42	1.49	2.76*	2.74*

\*  $p < .05$

## 2. 영재학생의 자아상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5가지 자아상태에 따라 영재선발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즉 자아상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 학생 중 5가지 자아상태 수준이 각각 상위 25%와 하위 25% 이내에 속하는 학생을 표집하여 각 영역별 평가결과에 대해  $t$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자아상태에 따른 개방형 주관식 평가결과

5가지 자아상태 수준이 상위 25%와 하위 25%에 속하는 두 집단의 개방형 주관식 평가결과를  $t$  검정한 결과, 비판적어버이자아상태(CP)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판적어버이자아상태(CP)가 상위 25%인 영재집단의 평균은 45.21 ( $SD=8.25$ )이었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52.28 ( $SD=10.94$ )이었다. 여기에 대한  $t$  검정 결과,  $t=-2.2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판적어버이자아(CP)가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상위집단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판적어버이자아(CP)가 낮은 학생의 경우, 개방형 주관식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풀이 과정보다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만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사고 활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아상태에 따른 개방형 주관식 평가결과

자아상태		$M$	$SD$	$t$
비판적 어버이 자아(CP)	상위집단	45.21	8.25	-2.25*
	하위집단	52.28	10.94	
양육적 어버이 자아(NP)	상위집단	43.03	9.52	-1.64
	하위집단	48.75	9.18	
어른자아(A)	상위집단	49.05	12.43	-0.23
	하위집단	50.04	10.38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	상위집단	48.73	9.13	-0.98
	하위집단	52.27	11.50	
순응적 어린이 자아(AC)	상위집단	50.89	12.07	0.85
	하위집단	46.79	12.26	

\*  $p<.05$



### 2) 자아상태에 따른 면접평가결과

영재선발 단계 중 면접평가에서는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면접평가결과가 영재학생의 자아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비판적어버이자아(CP)가 상위 25%인 집단과 하위 25%인 집단 간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즉 상위집단의 면접평가평균은 7.78 ( $SD=0.97$ ), 하위집단의 평균은 7.10 ( $SD=0.87$ )으로 나타나  $t$  검정 결과,  $t=2.2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규칙을 가르치고 통제하거나 어떠한 가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질책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발달된 영재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이 더 발달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자아상태에 따른 면접평가결과

자아상태		<i>M</i>	<i>SD</i>	<i>t</i>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위집단	7.78	0.97	2.27*
	하위집단	7.10	0.87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위집단	7.60	0.91	0.29
	하위집단	7.50	0.94	
어른자아	상위집단	7.57	1.07	0.21
	하위집단	7.50	0.79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위집단	7.61	0.96	1.02
	하위집단	7.25	1.01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위집단	7.21	1.25	-0.44
	하위집단	7.41	1.08	

\*  $p<.05$

### 3) 자아상태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5가지 자아상태 수준이 상위 25%와 하위 25%에 속하는 영재집단의 종합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의미있는 차이는 양육적어버이자아상태(NP)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적어버이자아(NP)가 하위 25%인 영재학생의 평균( $M=47.60$ ,  $SD=9.07$ )이 상위 25%인 영재학생( $M=44.61$ ,  $SD=7.39$ )보다 훨씬 더 높아 이러한 두 집단 간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따뜻한 온정과 애정을 지니며 위로하고 격려 및 지지해주는 온정적인 행동 기능이 낮은 영재학생일수록 영재선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lt;표 9&gt; 자아상태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자아상태		<i>M</i>	<i>SD</i>	<i>t</i>
비판적	상위집단	44.61	7.39	-1.11
어버이 자아	하위집단	47.60	9.07	
양육적	상위집단	41.22	7.06	-2.30*
어버이 자아	하위집단	48.25	9.32	
어른자아	상위집단	46.06	8.74	0.21
	하위집단	45.31	10.73	
자유로운	상위집단	44.66	8.75	-1.27
어린이 자아	하위집단	48.62	8.58	
순응적	상위집단	46.58	9.91	0.17
어린이 자아	하위집단	45.89	10.52	

\*  $p < .05$ 

## V. 결론 및 논의

학습자 개인의 성격 및 자아상태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이들이 선호하는 학습양식과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 영재들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그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영재교육 활동의 효율과 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특성의 가장 대표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성격과 자아상태가 영재선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변인적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냄으로써 이들 변인과 영재선발 평가결과 간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분석 결과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영재학생의 성격과 영재선발 평가결과

#### 1) 성격유형 선호지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각 단계별 영재선발 평가결과를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에 따라 그 차를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사고형-감정형(T-F) 선호지표와 판단형-인식형(J-P) 선호지표가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사고형일수록 그리고 인식형일수록 영재선발 평가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아를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김민(2007)의 연구와 송종건

(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업성적 상위그룹 학생들의 성격경향을 분석한 고병연(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형(T)의 특성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인식형(P)의 특성이 영재선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영재들은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계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요구되었으며 3차 선발에서는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및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이 평가되었다. 특히나 영재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능력들은 사고형(T)의 성격유형 즉 논리성과 객관성을 선호하고 명확한 목적을 지닌 구조화 과정과 교사의 강의 및 논증을 선호하는 특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심리적 기능 및 기질유형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영재선발 단계 중 수행평가와 종합평가에서 직관적사고형(NT)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는 이들의 기질적 특성 및 선호하는 학습유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 평가되는 직관적사고형(NT)은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하며 이론적 관계와 추상적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적 이론적 분야에서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직관적사고형(NT) 학습자의 특성은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각 단계별 진행을 이해하고 중간결과 등을 추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평가되는 수행평가의 상황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그리고 고난이도의 수학 과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영재선발 평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 상황에서 직관적사고형(NT)의 학습자는 지적 호기심이 많고 규칙과 원리를 통해 인지적 세계를 구조화하며 과학기술이나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학문 영역에 잘 적응하는 사고의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다른 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2. 자아상태에 따른 영재선발 평가결과

### 1) 자아상태에 따른 개방형 주관식 평가결과

개방형 주관식 문제를 통해 정답의 유무보다는 학생 자신의 생각을 남다르게 논리적으로 진

개해가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요하는 2단계 영재선발 즉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검사에서는 비판적어버이자아(CP) 수준이 하위 25% 이내 속하는 영재집단이 상위 25%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판적어버이자아(CP)가 지니는 특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비판적어버이자아(CP)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규칙 등에 대한 학습이나 양심, 이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주로 비평이나 비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창의성을 억제하고 처벌적이고 엄한 면이 많으며 지배적인 태도와 명령적인 말투, 질책하는 경향이 전면 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판적어버이자아(CP)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그대로 지지되고 있다. 이에 자신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기질이 강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특성을 지닌 상위집단 보다는 이러한 성향이 약한 하위집단이 영재선발 2단계 즉 개방형 주관식 문제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2) 자아상태에 따른 면접평가결과

전체 연구대상 중 5가지 자아상태 수준이 각각 상위 25%와 하위 25% 이내에 속하는 영재들을 표집하여 이들의 면접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비판적어버이자아상태가 상위 25%인 집단이 하위집단보다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한 면접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기의 의견이나 입장을 신중히 생각하고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하면서 자발성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상위집단 영재가 전공 면접이나 실험 면접에서 요구되는 고난이도의 사고력과 실험과정 전반에 대한 수행능력, 결과 추론력 등을 더 잘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면접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 흔히 따라붙는 “왜”라는 물음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상위집단 영재들은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끈기있게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주장함으로써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3) 자아상태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영재선발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자아상태 상위 25%와 하위 25%인 영재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양육적어버이자아(NP)가 하위 25%인 영재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생의 자아상태와 영재선발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자면, 이들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상태는 어버이자아(P)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평가에서는 양

육적어버이자아(NP)가, 면접평가와 창의적문제해결력평가에서는 비판적어버이자아(CP)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버이자아(P)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평가결과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개방형 주관식 평가와 종합평가에서는 어버이자아(P) 수준이 낮을 때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 어버이자아(P) 수준이 높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말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상황에서는 “외적 경험적인 사태가 뇌에 기록되어진 경험의 집합체”라고 정의되어지는(최윤정, 1999 재인용) 어버이자아(P)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어버이자아상태(장선심, 2006)는 창의적문제해결력을 발휘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이 평가되는 면접상황에서는 어버이자아(P)가 높은 경우, 평가결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즉 많은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영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고차원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능력, 논리적 학문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활동은 성격유형 중 사고형(T)과 심리적 기질유형 중 직관적사고형(NT)과 관련성이 있다. 이에 영재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직관적사고형에게 맞는 즉 원칙을 이해하고 정보를 찾는 과제나 장기간의 프로젝트형 학습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회(Keirse, 1982)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념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의 사고특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논리적인 결과들을 예측하는 집단토론과 같은 학습양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들을 위한 좋은 교수방법이 될 것이다(정순진,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 개인이 지니는 성격적인 특성들은 이들의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며 두 요인 간의 이러한 관계성은 일반아뿐만 아니라 영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재들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심리적·정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유형별, 수준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병연 (2010) 중학교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과학 불안과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 권은영 (2008).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 권혁자 (1997).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 김민 (2007)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학교.
- 김민정 (2002). 고교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강릉대학교.
- 김정택, 심혜숙 (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2000).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혜경 (1996). 성격유형과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문정화, 이승희 (1993). 인문화 검사를 통한 영재아와 비영재아의 심리적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2(1), 239-251.
- 변소윤 (2007). 초중등 과학·수학 영재의 성격유형 분석.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서준석 (2001).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MBTI의 4가지 심리기능과 교류분석의 Ego-Gram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종건 (1994).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송현중 (1998). 이고그램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여수대학교 논문집**, 13(1), 123-135.
- 심혜숙, 임승환 (1997). **성격과 삶의 양식**.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우재현 역 (1993). **이고그램**.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1997).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TA) 프로그램**. 정암서원.
- 윤은중, 김희수(2006).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4(2), 57-70.
- 이경화 (2003).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2(2), 29-47.
- 이경아, 유나현, 이은경, 전주연, 이기학 (2004). 학습성격유형 및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07-121.
- 이병래 (1998). 유치원 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3(2).
- 이순주, 박찬웅 (2009). 영재아의 성격유형과 자아상태 분석. **영재교육연구**, 19(1), 25-46.

- 이현정 (2006). 사립유치원 교사의 에고그램에 의한 성격유형과 역할수행인식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 이혜영 (2003). MBTI를 이용한 영재학생의 성격유형 분석.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임준환 (1993). 자아개념과 학업성적 및 적응행동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장선심 (2006).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인생태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 장언효, 조석희 (1980).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18.
- 정순진 (2007).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양식 비교.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조한익 (1990).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아 및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양식의 차이.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최선희 (1998). 중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불안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최윤정 (1999). 청소년의 자아상태와 공격성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최원현 (2000). MMTIC에 의한 초등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한국교류분석 협회 (1994). **교류분석(TA) 체크리스트**. 대구: 정암서원.
- 허정 (1991). 고등학교 행정의 실적평가에 관한 연구 -Carl G. Jung의 성격유형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황정규 (1985).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Ablard, K. E. (1997). Self-perceptions and needs as a function of type of academic ability and gender. *Roepers Review*, 20(2), 110-115.
- Benbow, C. P. (1986). Physiological correlates of extreme intellectual precocity. *Neuropsychologia*, 24, 719-725.
- Bartell, N. P., & Reynolds, W. M. (1986).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cademically gifted and nongifted children: A comparison stud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4(1), 55-61.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inder, D. M., Jones, J. G., & Strowig, R. W. (1970). Non-intellective self-report variables as predictors of scholast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3, 364-366.
- Bloom, B. S. (1971).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 Hill.
- Calsyn, R. J., & Kenny, D. A. (1977). Self concept of ability and perceived evaluation of others: Cause or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 Coleman, J. M., & Fulst, B. A. (1983). Self-concept and gifted children. *Roepers Review*,

44-47.

- Dusay, J. M. (1977).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New Youk: Harper & Row.
- Gross, M. U. M (1993).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NY: Routledge.
- Keirse, D. (1982). *Word Learning with Hierarchy Guided Infer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82, Pittsburgh)*. Los Altos, CA: Morgan Kaufmann.
- Keirse, D., & Bates, M. (1984). *Please understand me*. Del Mar, CA: Prometheus Nemesis.
- Lawrence, G. (1984). A synthesis of learning style research involving the MBTI.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 Lathey, J. (1991). Tempera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2. 52-58.
- Lian, Hwang. (1990). Self-esteem of gifted, normal and mild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Adolescence*, 27(3), 263-268.
- Maccoby, E. E., & Zellner, M. (1970), *Experiments in primary education: Aspects of project follow-through*.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rich.
- Montour, S. (1977). William James Sidis, the broken twig. *American Psychologist*, 32. 265-279.
- Myers, I. B., & McCaully, M. H.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churr, K. T., Henriksen, L. W., Alcorn, B. K., & Dillard, N. (1992). Tests and Psychological Types for nurses and teachers: Classroom achievement and standardized test scores measuring specific training objectives and general ability.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3, 38-44.
- Silverman, L. K. (1993). The Gifted Individual. In L. K. Silverman (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 논문접수 2010년 8월 3일/ 1차 심사 2010년 8월 20일/ 게재 승인 2010년 9월 11일

\* 이순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Russia Moscow State University 교육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 교육학부에서 영재교육을 전공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동서양 주요 국가의 영재교육', 주요 논문으로는 '언어적 매개체와 시각적 매개체를 이용한 비계설정이 아동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이 있다.

\* E-mail : soonjoolee@hanbat.ac.kr



Abstract

##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Gifted Students' Personality Types, Ego-state and Evaluation Results in the Gifted Selection**

Lee, Soonjoo\*

In this study, relationships between gifted student's personality types, ego-state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was that thinking type(T) and perceiveing type(P)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 of overall evaluation. Second, NT type students had significantly the highest score and SJ type students had the lowest score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overall evalua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gifted student's temperament types. 3r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ifted student's ego-state and academic achievement showed that parent ego-state(P) influence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Nurturing parent ego-state(NP) affects the field of overall evaluation and critical parent(CP) affects the field of proficiency interview. Through these results we could obtain the basic data which have helped to seek how to develop programs and teaching-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This effort will help them to improve not only their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common thinking characteristics which gifted students of each field show.

Key words : gifted student, personality types, ego-state, evaluation results, selection of gifted students, Ego-gram test, MMTIC test

---

\* Associate Professor, Hanbat National University